

# 출장보고서

## 1. 출장 개요

- 목 적 : Growth Dialogue/OECD/World Bank 주최 심포지움("New Geography of Innovation and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참석 및 OECD와의 연구협력 협의
- 출장지 : 프랑스 파리(OECD)
- 출장자 : 현오석 원장, 우천식 선임연구위원, 김기완 부연구위원
- 기 간 : 2012년 1월 18~22일(김기완 박사는 2012년 1월 18~21일)
  - 출장 세부 일정
    - 1월 18일(수) 출국(인천 → 파리)
    - 1월 19일(목) 전일 및 20일(금) 오전 심포지움 참석(사회 및 발표)
    - 1월 19~20일(목~금) OECD와의 업무 협의
      - \* SPB 후속연구 협의: 1.19(목) 오후 및 1.20(금) 만찬 (OECD SBP팀, 정일용 공사 등 관계자 다수)
      - \* Development Center 업무협의: 1.20(금) 오후 (Mario Pezzini 소장 등 관계자)
      - \* DSTI 업무협의: 1.20(금) 오전 (Chiara Criscuolo Senior Economist)
    - 1월 21~22일(토/일) 귀국(파리 → 인천)
      - \* 김기완 박사는 1월 20~21일(금/토) 귀국

## 2. 출장 활동 내역

### A. Growth Dialogue/OECD/World Bank 주최 심포지움

- 심포지움 개요
  - 금번 심포지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술혁신(innovation) 투자에 대한 영향과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글로벌 환경 변화의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OECD, World Bank의 국제기구와 각국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개최함.

- 심포지움은 2012년 1월 19~20일 OECD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
- 심포지움에는 Richard A. Boucher(OECD 사무처장), Danny Leipziger(Growth Dialogue Managing Director), Carl Dahlman(미 Georgetwon대 교수), Mu Rongping(중국 사회과학원 국장)과 한국, 유럽, 중국, 브라질, 미국, 베트남 등 기술혁신정책 관계자 및 OECD, World Bank의 국제기구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
- 한국측 참석자로는 현오석 원장이 세션 4의 사회를 맡고, 김기완 박사가 세션 3의 최근 한국 사례에 대한 발표를 담당함 (우천식 박사는 observer로 참여). 또한 허경욱 주OECD 대사의 Closing Remark로 심포지움을 마무리함.

### 주요 논의내용

- 전체 심포지움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 동아시아와 남미 등 최근의 국가별 사례, 신흥국의 기술역량 성장으로 인한 글로벌 기술혁신 지형의 변화, 예산 압박 하의 혁신정책 방향, 기술혁신의 새로운 지형이 글로벌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에 주는 함의에 대한 Wrap-up 토의 등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됨.
- 첫 번째 세션의 기조발제자인 Philippe Aghion 교수(미 하버드대)는 발표문("Delivering on the 'Monti Triangle': Growth, Budgetary Discipline and Social Cohesion")에서 예산 압박 하에서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경기대응적 거시정책, 혁신을 위한 targeted investments, 재정·지출 개혁 등)이 존재함을 역설함.
- 경제성장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과도한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역시 중요함을 지적하고, 사회통합 제고와 경제성장 유지에 있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
- 두 번째 세션의 기조발제자인 Reinhilde Veugelers 교수(벨기에 뤼벵대)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간 유럽의 R&D 투자와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기술혁신 투자의 국가 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뚜렷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특히 'Yollies(Young Leading Innovators를 지칭)의 성장 면에서 유럽은 여전히 미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세 번째 세션에서는 콜롬비아, 한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술혁신투자에 대한 영향과 국가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함.
-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의 양적 규모 면에서는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질적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부문간 기술혁신투자의 불균형 극복과 공공부문(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 생산성의 제고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함.
- 또한 기존의 투입형 혁신정책에서 확산형 혁신정책으로의 전환과 창업·중소기업 및 기술집약서비스 분야의 혁신 촉진, 산학연 간의 연계 강화 등을 주요 이슈로 제기함.
- 네 번째 세션의 기조발제자인 Carl Dahlman 교수(미 조지타운대)는 R&D 투자 및 이공계 박사학위 양성 등에서 중국이 기술혁신 창출의 주요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혁신 관련 글로벌 지형의 변화와 경쟁의 격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함.
- 반면 지정토론자인 Shahid Yusuf 박사(Growth Dialogue Chief Economist)는 중국의 기술혁신 투자 및 성과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글로벌 기술혁신 지형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지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피력
- 다섯 번째 세션의 기조발제자인 Dominique Guellec 과장(OECD DSTI Country Studies 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에서 R&D 투자, 특허 생산건수 및 신규 창업의 위축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몇 년간 OECD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함.
- R&D 및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아젠다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저성장 시기의 혁신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공공연구부문 등의 구조개혁,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불확실성의 제거, 새로운 성장동력(IT 기반 서비스,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여성·소수자 등의 인적자본 활용), Skill 등 핵심자산의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
- 마지막으로 중국의 성공적인 성장 사례는 기존의 산업정책에 대한 관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이슈를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이 중요함을 지적함.
- 마지막 Wrap-up 세션에서는 이틀간의 논의를 종합함.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혁신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현저하게 증가된 재정압박 하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정책 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됨.
- 또한 성장과 분배, 민주주의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 수단의 발굴과 집행이 중요함을 지적함.

B. OECD와의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

□ SPB 후속연구 협의

- 일시 : 1월 19일(목) 14:00-16:00 (실무자 회의) 및 1월 20일(금) 19:00-21:00 (원장님 초청 만찬회의)
- 참석자 : Stefano Scarpetta(ELSA 부국장), Randall Jones(ECO Korea Desk Head), Deborah Roseveare(EDU 교육훈련과장), Mark Keese(ELSA 고용정책과장), 정일용 OECD 대표부 공사, 본원 원장님, 우천식 박사
- 의제 : 2월말까지 체결 예정인 ToR 내용 최종 협의
- 배경
  - KDI는 OECD 한국대표부를 매개로 논의된 바 있는 OECD SPB(Social Policy Brochure) 작업에 대한 KDI-OECD 간의 후속 협력연구를 KDI 공식과제의 하나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01.12.6일자로 OECD에 대해 10만유로의 과제추진금을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VC)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동 과제 목적을 위해서 OECD 한국대표부는 10만 유로를 별도로 VC하였음).
  - 이런 과정에서 사업 추진 자체, 사업의 기본 골격, 내용 등에 관해 OECD와 합의한 바 있으나 ToR의 핵심내용인 주요 일정, 비용분담 등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바, 동 출장을 통해 이를 협의하여 ToR 체결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SPB(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가 한국정부와의 특별 협력과제로서 한국의 사회정책분야 전반을 검토한 특별보고서로서,</li> <li>- 고용·노동·사회정책국(ELSA), 경제국(ECO), 교육국(EDU) 등 OECD 주력 연구국 다수가 참여하여 2010년 가을 이후 추진한 범OECD 작업의 산물</li> <li>- 지난 6.20-21일 서울에서 개최된 GGS(Global Green Growth Summit) 회의</li> </ul>

를 통해 처음으로 그 보고서를 공개하였음

-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OECD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분야 현안 다수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 개선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 기존 국내의 관련 연구 및 논의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

\* 주요 관심 현안: 고용, 소득 분배 및 빈곤, 양성 평등 및 출산율, 사회 보장(공공연금, 장기요양보호 및 보건의료), 교육 형평성, 창업, 중소기업 활성화 및 미소금융제도, 세계 개혁

- 지난 6.22일 SPB 주요 집필진이 KDI를 방문하여 SPB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

※ SPB의 주요 내용은 GGS 당시 KDI가 작성한 관련 보도자료 참조

○ 금번 출장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

- 'KDI-OECD 공동보고서'가 아닌 양 기관 각각의 보고서를 발간하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양 기관이 공동개최·참여하는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통해 연구내용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조

- OECD는 기존 SPB 보고서를 확장하여 OECD 단행본 수준의 한국의 사회 정책 보고서를 발간(2013년 3월까지)

- 주요 일정

· 2012. 2월 말: KDI-OECD간 ToR 체결

· 1차 세미나: 2012. 4월 말/5월 초(OECD의 Korea Survey발간 이후), 파리

\* KDI 팀의 OECD 방문 및 전문가 세미나

· OECD 팀 한국방문 (mission trip): 2012년 중반

· 최종 컨퍼런스: 2012. 12/2013. 1, 서울

- 비용분담에 대하여 OECD측은 OECD팀의 Mission Trip 및 최종 컨퍼런스 참석비용을 KDI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원은 OECD 팀의 서울 최종 컨퍼런스 참석비용은 KDI가 부담하나, Mission Trip 비용은 OECD가 본원 및 대표부가 연구비로 기여한 VC에서 자체충당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 조율을 통해 2월말까지 ToR을 체결할 계획임.

#### □ OECD Development Center와의 업무협의

○ 일시 : 1월 20일(금) 16:00-18:00

○ 참석자 : Mario Pezzini DEV 소장, Federico Bonaglia(Head, Policy Dialogue Divison), 임지연(Advisor) 등 관계자, 본원 원장님, 우천식 박사

○ 의제 : 1) DC 주관 Global Forum on Development(GFD), 2) DC 창립 50주년 기념 Conference, 3) OECD Development Strategy 등 3개 사업에 있어서 KDI의 참여방안 협의

○ 협의 결과

- 1)과 2)에 대한 KDI의 참여와 관련, DEV는 2월 28~29일 및 3월 1일 예정되어 있는 Back-to-back 행사(아래 박스 참조)에 대한 KDI 측(원장님)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본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 1. DC 주관 Global Forum on Development

○ 일시: 2012. 2. 28~29

○ 장소: OECD 파리

○ 내용: DC 연례 행사로서 OECD 내 DAC 및 주제별 1개 유관 연구국과 공동으로 개최(금년에는 Global Governance가 주제로서 GOV가 참여)

- DC 38개 회원국, 기타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며, 금년도에는 DC-DAC가 추진하고 있는 Development Strategy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경사연이 작년도에 FINET라는 연구기관 네트워크에 가입한 바 있으며, DEV는 이번 행사의 마지막 Roundtable Panel Discussion 등에 원장님이 참석하는 방안을 제안

- 기타 DC는 개도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Peer Review형(S-S-N) Policy Dialogue 모형을 개발 중이며, 이에 대한 KDI 및 한국 측(수출입은행, KOICA 등)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음.

#### 2. DC 창립 50주년 기념 Conference

○ 일시: 2012. 3. 2

○ 장소: OECD 파리

○ 내용: 상기 행사에 이은 Back-to-back 행사로서 DC 창립 50주년을 맞아 장관급 고위행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

- OECD 개도국 사업의 주축으로서 DC의 새로운 위상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Declaration 행사로서 Development Strategy의 주력 요소가 포함될 계획

\* 주요 행사 구성요소: 1) Development Strategy, 2) Effective Institutions, 3) Development Model

- DC는 동 행사에 한국이 Co-chair(장관급) 수준으로 적극 참여하길 기대 (대표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의 중)
- DC는 또한 KDI가 상기 구성 요소 중, Effective Institutions의 하나로서 MRH에 대해 기여하는 방안을 기대

- Development Strategy (DS) 관련 DEV의 신규사업에의 KDI 협력
  - OECD는 2011년 MCM의 Mandate인 Development Strategy Report를 작성 중이며, 이를 올해 5월에 예정되어 있는 MCM에서 공식 Release 할 예정임.
  - 아직 이에 관한 KDI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으나, Development Strategy의 구성요소인 Governance 및 그 하위요소인 Effective Institutions, 그리고 KSP 사업과 관련하여 본원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최소한의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
  - DEV는 최근 DS의 구체적인 Program으로서, 1) Developing Countries에 대한 Country Survey, 2) Social Cohesion에 관한 새로운 Thematic Studies 등을 구상하여 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이들 사업에 있어 KDI가 적극 참여·협력해 줄 것을 제안하였음.
  - 본 원은 이들 연구가 기존의 KSP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세계경제에 관한 이해와 기여를 높이고자 하는 본원의 장기적인 연구전략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동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구상/제안 문건을 보내주기를 요청함.

□ OECD DSTI(Directorat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와의 업무협의

- 일시 : 1월 20일(금) 10:00-11:30
- 참석자 : OECD Chiara Criscuolo(Senior Economist), 우천식 박사
- 의제 : 한국의 Innovation 및 산업경쟁력 연구 관련 협력방안 협의
- 배경
  - 본원 산업경쟁정책연구부는 OECD DSTI와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혁신체제’ 관련 협력연구 가능성을 모색해 왔음.
- \* 과제내용 : OECD의 기업연구 D/B 및 내용 흡수, KDI의 산업경쟁력 분석틀 공유 및 OECD의 분석틀로서 Mainstream화 등

\* 2013년 가을 계획하고 있는 “제2차 글로벌 산업경제포럼”에서 협력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연구결과 활용

- 2011년 12월 1~2일 제주에서 본원이 개최한 “글로벌 산업경제정책 협력 포럼”에 DSTI의 Dirk Pilat 과장이 참석했을 당시, 상기 협력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OECD 측의 과제제안(ToR) 초안을 검토한 바 있음.
- 협의 결과
  - 금번 회의는 이상에 관한 양측의 관심을 확인하고, 그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본원의 연구역력, 관심도 등을 확인하여 이후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함.
  - 이외에도 DSTI의 Working Parties(WPIA: WP on Industrial Analysis) 등에 KDI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함.